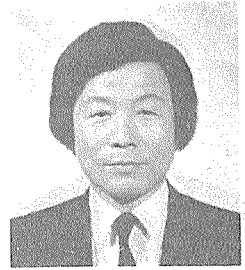


電子產業 輸出 100億弗 達成과 向後 課題



安 秀 桔 / 서울대학교 電子工學科 教授 · 工博

1987年은 跳躍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跳躍은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의 成長率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서 계속 높고 韓國 電子工業의 1986年 生産額은 112億弗로서 台灣과 이탈리아를 누르고 世界 第6位가 되었던 것이다.

家電機器와 電子部品에서는 이미 世界 第3位가 되었고 全体 額數에서 또 다시 第6位가 아닌 第3位가 되는 것은 시간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産業用 機器에서만은 第12位이며 이 분야에서 西歐 諸國에 견줄만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하다.

이와 같이 韓國의 電子産業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으며 纖維産業과 雙璧을 이루어 앞으로는 韓國의 國際收支를 지탱해 줄 것으로 보인다.

1987年인 금년에는 輸出額만 100億弗을 넘겼다. 이것은 뚜렷한 里程碑이다. 한동안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家電機器로 한정되어 이렇다 할만한 뿌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우리의 우려는 특히 韓國의 電子産業이 電子部品生産分野에서 약하다는 것이었다.

電子部品은 裝置産業이고 따라서 박리다매해야 하는바 世界舞臺의 獨寡占産業이 되기 쉬운 分野이다. 이分野에서 日本과 台灣은 크게 投資를 해 왔고 염가로

供給을 하여 世界市場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끼어들어 數年사이에 어떠한 利益을 낼 것으로 보이지를 않았다.

円貨의 價值 昂등과 美弗換率의 暴落이 기대하기 어려운 好機를 우리에게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금년에는 民主化過程의 진통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電子産業이 世界에서 6位보다 앞선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해도 우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跳躍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韓國사람들이 모든 分野에서 自信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 몇 10年동안 많은 사람들이 外國旅行을 다녀오는 길에 日本을 지나오는 것을 당연한 코스로 알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면서 여러가지 더 堅固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家電機器들을 과히 비싸지 않은 價格으로 購入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日本을 들리지 않고 돌아 오는 경우가 흔하다. 日本에서 求할 수 있는 웬만한 것은 韓國에서도 入手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自信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自己의 最善의 能力을 발휘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일이 풀리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여러 分野에서 아직 부족함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여러모로 임시적인 罅隙로 시작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가지 分野에서 발꿈치를 세워가면서 無理한 虛勢를 부러왔고 우선 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다음 罅과 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無理한 턱걸이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바닥을 다져야 할 것이다. 教育機關이나 産業現場에서 우리는 바탕을 위한 投資를 게을리해왔고 모든 電子製品의 設計와 生産에 있어서 충분한 뿌리를 갖지 못해 어느 外國技術者가 지적했듯이 「日本사람들은 남의 흉을 냈으나 韓國사람들은 흉내마저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하는 것을 再認識해야 한다.

根本의 박약함을 똑똑히 깨닫고 지금이라도 教育과 研究에 제대로의 投資를 해야 한다.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한다.

그리고 ڑ대 있는 匠人과 現場技術者로서의 프라이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늦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 않았는가.